

북한원전출판의 새 경향 '醫藥도서'

북한한의학의 실천적 연구성과들...현재까지 10여종 선보여

80년대 후반 대학가에서 일기 시작한 '북한 바로알기운동'에서 촉발되어 꾸준히 지속되어 온 북한원전의 재출간은 그동안 정치, 사상, 문학, 예술, 역사 등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북한원전 재출간에 있어 최근 새로운 경향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북한 한의학서적의 재출간이다.

최근 서점에 선보이고 있는 북한 한의학 서적은 총 10여종으로, '동의학'이라 불리고 있는 우리 전통의학의 북한에서의 연구성과를 집약하고 있다.

이들 책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특징은 우선 국내에서 출간된 이 방면의 기존서적보다 그 규모나 범위가 방대하며 다양하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연자원과 자생하는 약재를 중심으로 하는 처방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용어에 있어서도 어려운 한자용어들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쓰고 있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다. 아울러 책의 서술체계에 있어서도 질병과 증상을 표제어로 하고 그에 관련된 치료법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찾아보기가 수월하다는 것도 이들 책이 지닌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인본과 재편집의 두가지 형태

원전을 그대로 영인하는 복사본 또는 재편집 형태로 재출간된 북한 한의학 서적은 다루고 있는 내용에 따라 사전이나 용어해설집, 자연 또는 민간요법에 의한 질병치료법, 약학, 의학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전과 용어해설집으로는 「재편집 동의학사전」(까지), 「동의학 가정백과」(푸른산), 「동의학 용어해설집」(일월서각) 등을 들 수 있다.

「재편집 동의학사전」은 북한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1988년 펴낸 동의학백과사전을 우리 독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재편집한 것으로 북한에서 이루어진 학문적인 성과와 실천적인 노력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엮은 집체적인 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4×6배판 1천2백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2만4천5백41개에 달하는 한의학 관련 용어들과 그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고 있다.

「동의학 가정백과」는 1980년 일본에서 출판된 「漢方・鍼灸・家庭療法」이라는 책을 참고로 하고 북한의 우수한 동의학 박사들이 저술하여 북한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서 펴낸 「동의학 가정요법」을 재편집한 책이다. 동의학의 기본 지식과 각 증상과 질병에 따른 동의학 치료법



서점에 나와있는 북한 한의학도서들.

을 소개하는 한편 식생활, 건강법도 다루고 있어 동의학 지식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질병의 진단과 예방치료가 가능하도록 한 실용서이다. 서양의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동의학을 이해하도록 하는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동의학 용어해설집」은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1985년에 출판한 것을 그대로 영인한 복사본. 이 책은 민족의학이라 일컬어지는 동의학의 대중화를 위해 북한에서 펴낸 최초의 한글판 용어사전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동의학 관련용어 1만여개를 표제어로 하고 침혈이명표, 동의학 이명표, 알약크기계산표, 약의 무게와 용량 계산표를 부록으로 실어 독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자연 또는 민간요법에 의한 질병치료 방법을 다루고 있는 책으로는 「자연을 이용한 질병치료학」(푸른산), 「자연치료 건강학」(일월서각), 「한국의 민간요법」(가서원) 등이 있다.

1960년대부터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시작된 민간요법 수집과 국내자원을 이용한 국민보건 사업을 위한 연구성과들을 집약한 것이 이들 책의 내용이다.

「자연을 이용한 질병치료」, 「자연치료 건강학」은 모두 북한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펴낸 「자연치료학」을 원전으로 재편집하거나 그대로 복각한 책. 온천, 약수, 감탕, 일광욕, 해수욕, 한증 등 국내 천연자원을 이용하여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등 각 분야의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한국의 민간요법」은 1966년 북한의학과학원 동의학연구소 민간요법연구실이 발행한 것으로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9개과 150여개의 질병증상에 대해 총 2000여 가지의

처방을 수록하고 있다. 체질에 따른 부작용을 첨부하고 각 약재의 성질을 정확히 밝혀 적절한 처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 한의학 서적 재출간의 또 한 분야는 약학에 관계된 책으로 「한국의 보약」(열린책들), 「실용동의약학」(일월서각) 등이 있다.

「한국의 보약」은 북한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1983년 발행한 「보약」을 재편집한 책으로 북한 한의학 서적출간품을 선도했다고 평가를 받을 만큼 좋은 반응을 얻었던 책이다. 한방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보약처방을 집대성하고 그 성분과 약리작용 및 배합이용 등을 임상실험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 국내에서 자생하는 약재를 우선으로 하여 그 효능을 설명하고 약물의 상호작용과 배합처방까지 열거하여 임상활용에 요긴할 뿐만 아니라, 보조적인 식이요법에 대한 설명도 곁들이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실용동의약학」은 역시 북한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서 1984년 발행한 책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419종의 東藥을 성분에 따라 14개 장으로 나누어 취급하고 그밖에 105종을 부록에 실고 있다. 약의 채취와 가공, 과학적으로 밝혀진 성분과 약리작용, 법제, 임상적 이용 등 실제로 약제를 생산하고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이상의 책들이 북한 한의학 연구성과의 실천적 결과들을 담고 있는 것인데 비해 북한 보건사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는가를 사적으로 고찰, 기술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 「조선보건사」(청년세대)이다. 1981년 북한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발행한 이 책은 고대부터 최근시기에 이르기까지의 보건의료사를 기술하고 있다. 북한보건의료사업의 주요 특징인

예방의학의 발전, 동의학과 서양의학의 결합, 무상치료제 등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발원되어 5~60년대 사회주의 건설시기에 진행, 70년대 들어 완성되기까지의 역사를 북한의 정치사상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책이다.

중복출판의 우려 적지 않아

북한 한의학 서적의 재출간이 이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최근의 현상에 대해 가치출판사 대표 박종만씨는 “무엇보다도 북한원전출판이 자유로워진 정치적 상황에 힘입은 바 크다. 그리고 활발해진 남북교류의 열기 속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동양학이나 건강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의학 분야에 대한 독자들의 수요가 많아졌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북한 한의학 서적이 출판사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것 같다”면서 아울러 “원전의 재출간 작업자체가 갖는 시간과 비용 절감 등의 잇점도 출판거리 부재에 허덕이는 우리 출판사들에게는 큰 매력 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 한의학 서적의 재출간 작업에 대한 국내 독자와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북한 의학서적들은 거의 사본다”고 밝힌 진상해씨(참된 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회장)는 “1960년대부터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 하에 이루어진 북한 한의학의 연구성과가 국내에 소개됨으로써 남·북한 의료계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앞당기며 나아가 상호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더없이 반갑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국내에 소개되는 북한 한의학 서적들의 대부분이 질병치료에만 국한되어 있고 중복출판의 우려도 없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에 대해 “묘약찾기에 열중하는 것으로 건강에 관심을 표시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독자들에게 자가진단과 자가처방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독자들에게 건강한 관심을 심어주고, 북한 한의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의료정책의 본질과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인 연구서의 출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 박남정 기자